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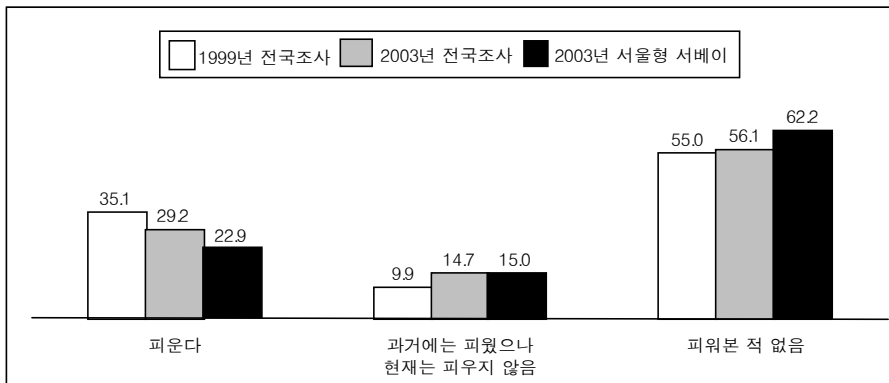
서울형 서베이¹⁾를 통해 본 서울시민의 생활상과 행복지수

-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 서울시민의 노후생활
- 서울의 성(性) 평등성
- 서울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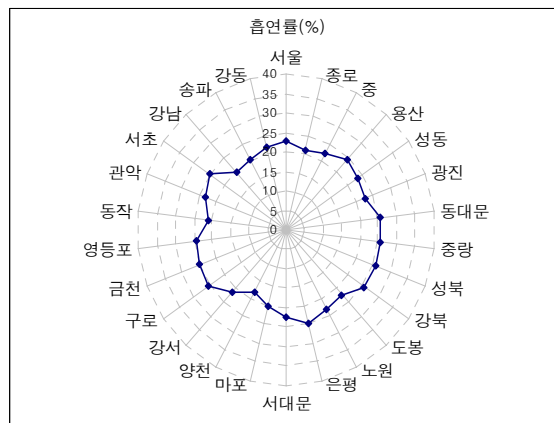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 서울시민은 얼마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가?
 - 2003년 기준 서울시민의 흡연률('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은 22.9%로, 전국 평균 29.2%보다 약간 낮은 편임. 흡연률이 높은 지역은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구로구 등이며, 강남권에서는 서초구의 흡연률이 높음. 흡연자의 흡연량은 하루 2/3갑 정도임.
 -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으며, 흡연자들의 흡연량은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민의 음주율은 63.8%로 전국(64.3%)보다 약간 낮으며, 20대와 30대의 음주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학력별로는 고학력자가, 권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음주자 10명 중 2-3명 정도는 주 1회 이상 술을 마시고 있으며(주 1-2회 15.6%, 주 3-4회 5.7%, 거의 매일 2.5%), 음주자의 56% 정도는 소주 반병에서 한병 정도를 마시는 주량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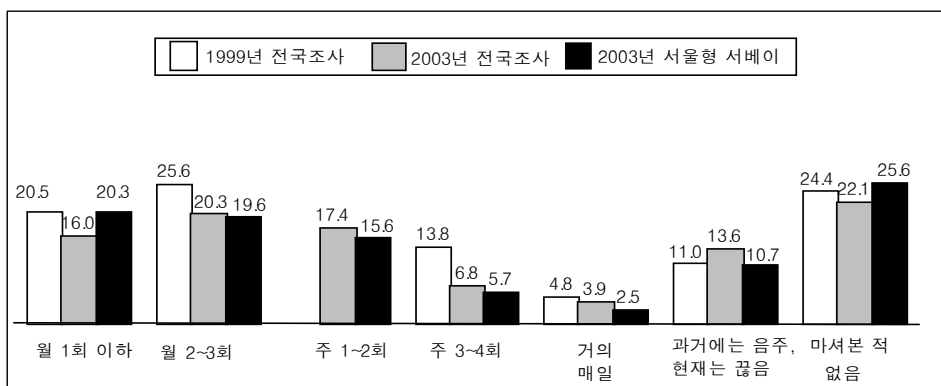
1) 서울형 서베이는 서울시 20,000가구, 47,631명 가구원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문화생활, 가구상태 등을 포괄하는 서울시의 도시사회정책지표에 관한 조사임. 서울형 서베이는 2003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매년 서울형 서베이를 실시할 계획임. 서울형 서베이의 서울시 주관부서는 정보화기획단임.



[그림 1] 서울시민의 흡연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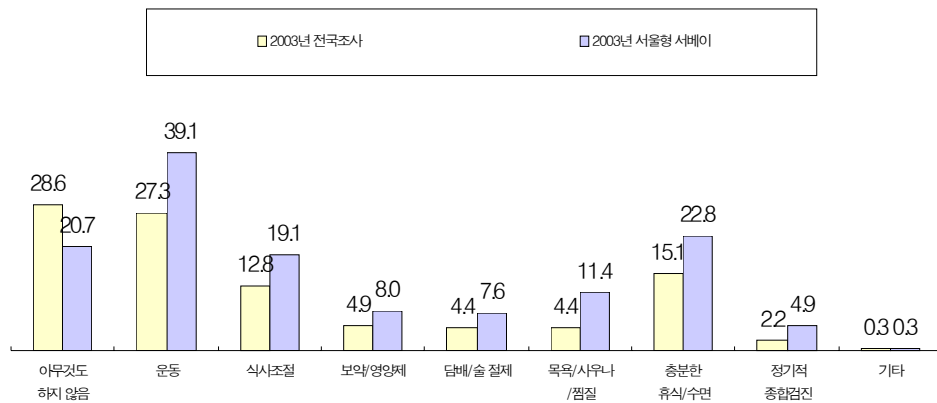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구(區)별 흡연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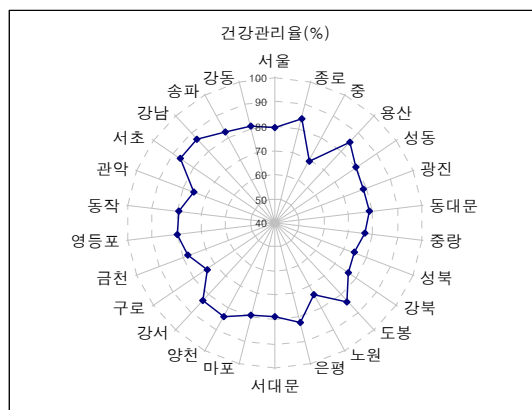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민의 음주율

○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정도(79.3%)는 건강관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비율은 전국 비율(71%)보다 높은 편임.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하는 건강관리법은 운동(39.1%)이며, 충분한 휴식(22.8%), 식사 조절(19.1%), 사우나·찜질방(11.4%) 등의 순임.
- 건강관리를 하는 비율은 40대와 50대의 고학력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지역별로는 강남, 서초, 용산구에서 건강관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문제는 그 자체로의 중요성 뿐 아니라 사회적 의료비 부담과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공공차원에서도 시민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그림 4]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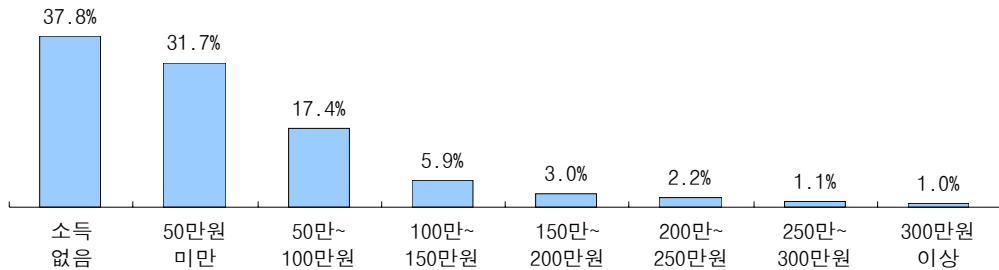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 구(區)별 건강관리율

서울시민의 노후생활

○ 서울의 노인들은 경제력을 갖고 있는가?

- 한국사회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의 경제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서울형 서베이에 나타난 서울에 사는 노인의 경제상황을 보면, 10명 중 6-7명 정도가 경제력이 미약하거나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서울 노인의 37.8%는 소득이 전무하며, 31.7%는 50만원 미만의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노인소득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이 없다'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진, 강북, 강동구 등이며, '월 평균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초, 강남, 양천, 송파구 등임.
- 이를 통해 노인소득의 지역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區)별 노인 소득에 대한 계층별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6] 서울 노인의 월평균 소득 분포

○ 서울의 노인들은 정기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이 중요한 요소인데, 서울의 노인들 중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다'는 비율은 과반수 정도인 50.9%이며, 또 다른 절반의 노인들은 별다른 모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으로는 종교단체 모임이 19.5%로 가장 많으며, 노인정이나 경로당(14.6%), 취미활동(10%)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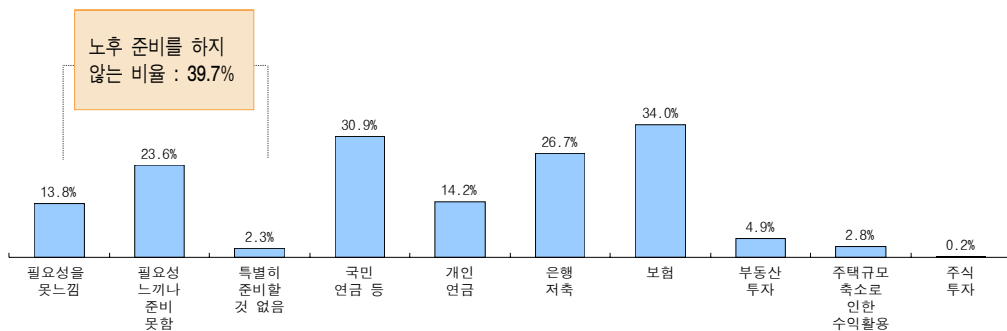
-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를 생각한다면 향후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표 1> 노인들의 사회활동 유형

유형	특별한 모임 없음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								
		직장	노인정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자원봉사 활동기관 모임	취미활동 모임	종교단체 모임	시민단체 사회단체	동창 모임	친목 모임
비율 (%)	49.1	6.7	14.6	7.6	2.3	10.0	19.5	1.9	2.0	2.4

○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방법

- 15세 이상 서울시민의 노후준비방법에 대해 '보험으로 대비한다는 경우'가 3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사립교원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30.9%), 은행저축(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노후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9.7%로 높은 편이었으며, 이 가운데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느끼나 준비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23.6%로 높게 나타났음. 특히,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성은 느끼나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60세 이상의 연령층과 서울의 동북권, 서북권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향후 노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그림 7] 노후준비방법

○ 서울시민들은 세대간 어떤 동거형태를 원하는가?

- 서울시민 과반수(51.3%)는 자신이 나이들었을 때 자녀와 가까운 거리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기를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노인전용 거주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비율이 26.6%로 그 다음 순위였음.
- 한편, 이러한 세대간 동거형태는 연령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세대간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들과 살고 싶다'는 비율이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9.5%이었으나, 이들 연령층의 자식세대라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6.2%, 6.5%에 지나지 않았음.
- 이와 같은 세대간 인식 차이로 인해 향후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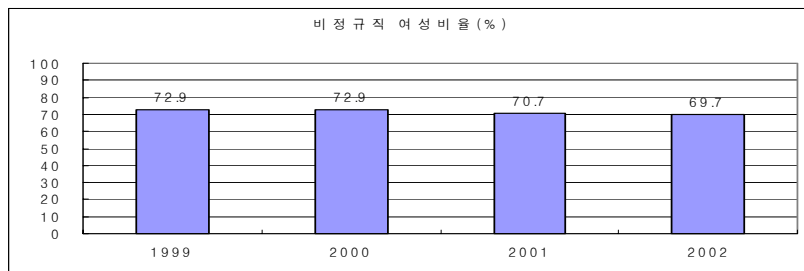
<표 2> 노후 동거형태 선호도

선호유형	아들과 함께 동거	딸과 함께 동거	친구와 함께 동거	노인전용 공간에서 거주	자녀와 가까운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	자녀와 관계없이 혼자 살고 싶다	기타	모름
비율 (%)	12.0	2.2	4.9	26.6	51.3	1.0	0.2	1.8

서울의 성(性) 평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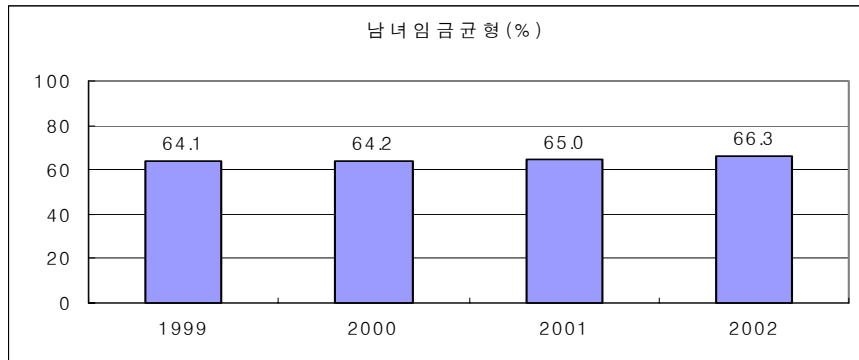
○ 서울의 남성과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적인가?

- 서울시민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9년 이후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율도 1999년 기준 대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2002년 70%에 달하고 있음.
- 2002년 기준 서울의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6.3% 수준임.



자료 : 경제활동인구연보

[그림 8] 비정규직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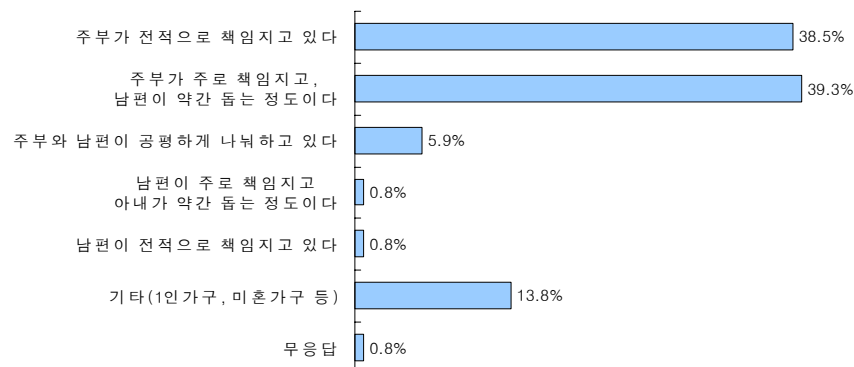


자료 : 서울 여성백서

[그림 9] 서울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

○ 서울의 남편과 아내들은 가사노동을 어떻게 나눠하고 있는가?

- 서울시민 생활에서 가사노동은 아직은 주부의 몫임을 알 수 있음. 즉, 가사노동을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38.5%), 주부가 책임지고 남편이 돕는 정도(39.3%)인 것으로 나타남.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누고 있다는 비율은 6%에 불과함.
- 이러한 가사노동 분담 현황은 세대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50, 60대의 노년세대에서는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비중이 높은 반면,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는 주부가 책임을 지나 남편이 돕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소득수준별로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양 집단에서는 가사노동을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비율이 높음.



[그림 10] 가사노동 분담 정도

서울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999년 15만여명에서 2000년 IMF의 영향으로 17여만명으로 늘었으나,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03년 기준 15만 9천여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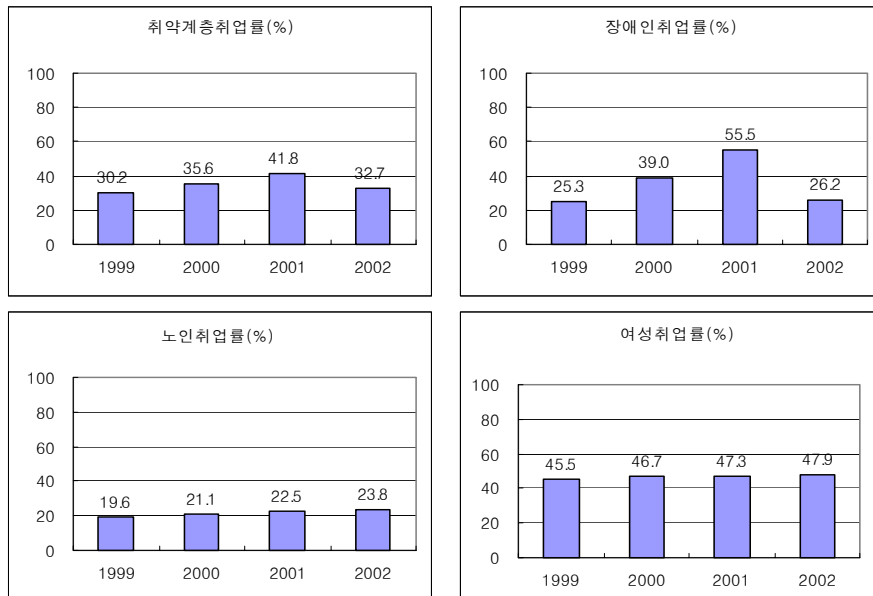
<표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1999년부터 2003년)

시점	수급자 수	수급자율
1999	150,255	1.46
2000	177,780	1.71
2001	168,897	1.63
2002	157,854	1.54
2003	159,716	1.55

자료 : 서울통계연보 각 연도, 2003년은 행정자료

○ 취약계층 취업률

- 서울시의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률은 2002년 기준 32%에 불과함. 이 비율은 1999년 30.1%에서 거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자립환경이 녹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자료 : 장애인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연보

[그림 11] 취약계층 취업률 평균과 취약계층별 취업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장애인들의 통행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반시설 중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함. 서울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대비 설치완료된 편의시설 비율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현재 설치대상시설의 86.4%가 설치완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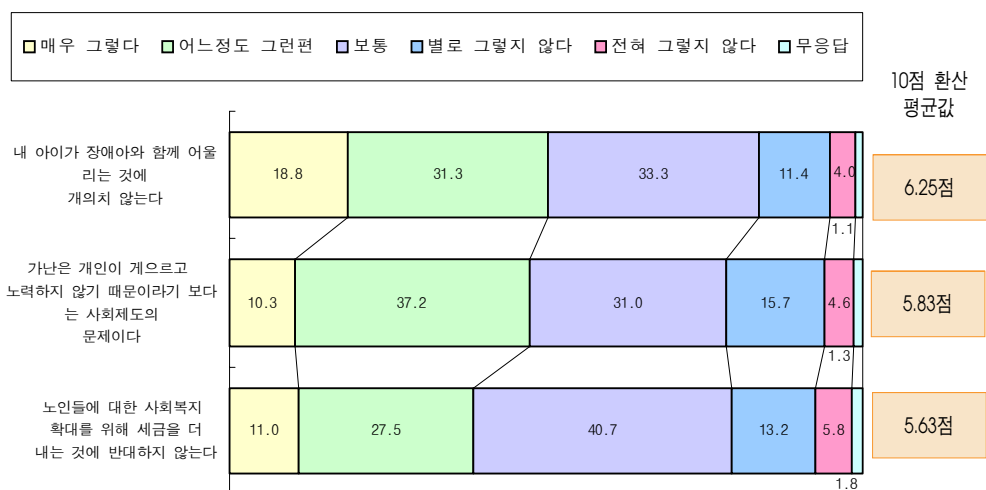
<표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2001	2002	2003
대 상	191,793	206,219	208,165
설 치	153,085	168,854	179,778
미 설 치	38,708	37,365	28,387
설치율 (%)	79.8%	81.9%	86.4%

자료 : 행정자료

○ 서울시민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 한 사회가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정도가 중요한 요소임. 서울형 서베이에 나타난 서울시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 조사 결과, 장애인이나 가난, 노인 복지 등에 대해 10점 만점 기준으로 포용성이 5.9점으로 나타남.
- 사회적 약자 중 장애아에 대한 포용정도가 6.2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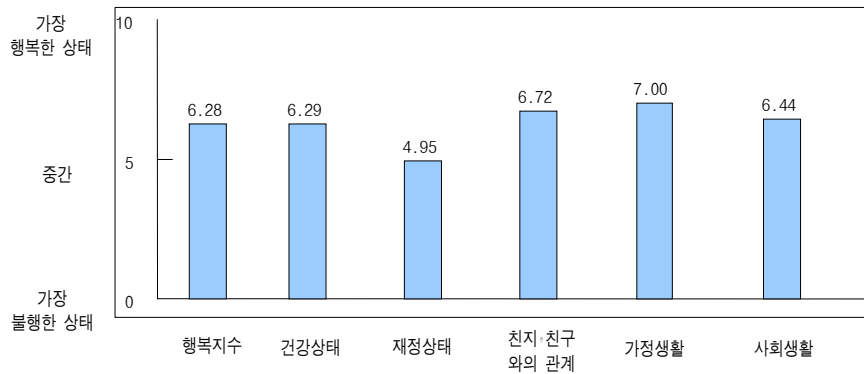


[그림 1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 서울시민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가?

-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 기준 6.28점으로, 서울의 보통 시민들은 스스로 약간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건강상태, 재정상태, 친지·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행복감이 높은 항목은 가정생활(7.0점)이며, 그 다음으로 주위친지·친구관계(6.72점), 사회생활(6.44점), 건강상태(6.29점) 순이었으며, 재정상태에 대한 행복점수는 4.95점으로 가장 낮았음.
- 전체적인 행복지수는 지역별로 중구, 서초구, 강남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재정상태 만족감의 지역별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가정생활이나 친지·친구관계 등 여타 항목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그림 13]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변미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303
miree21@sdi.re.kr

강영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91
ykang@sdi.re.kr